

고학년용

선비세상

체험학습지



고학년용

선비세상 체험학습지

목차 Contents



한옥촌 선비의 집을 찾다

02



한복촌 예를 갖춘 바른 몸가짐

04



한식촌 소박하고 건강한 상차림

06



한지촌 생각을 담는 그릇

08



한글촌 바르게 쓰는 한글

10



한음악촌 선율이 흐르다

12

* 본 체험학습지의 저작권은 선비세상 운영본부에 있으며, 선비세상 방문체험 용도 이외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배포 할 수 없습니다.

한옥촌

선비의 집을 찾다



선비들은 어디에 집을 지었을까?

★힌트_ 한옥문화관 전시글을 살펴보세요!

선비들은 풍수지리상 명당이라 여겨지는 지형과 환경을 아주 좋은 집터로 여겼습니다. 산을 등지고 마을 앞으로 냇물이 흘러가는 **배** 의 조건 이외에도 물을 구하기 쉬운 곳, 토양이 비옥한 곳, 풍속과 인심이 좋은 곳,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을 고려하여 집터를 잡았습니다.

한옥의 각 공간의 명칭은 어떻게 될까요?

선비는 집과 사람에 대한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집은 남자 공간, 여자 공간, 효의 실천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래 사다리 타기로 각 공간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남자 공간

여자 공간

효의 실천 공간

사당

사랑채

안채

덧) 집의 공간을 나누는데 있어 가장 큰 원리는 유교적 원리와 배려입니다. 장유유서, 남녀유별 등의 유교적 윤리를 따르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활을 존중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화 와 _____



머 _____



다 과 _____

방 _____



달 _____



반 _____



화 _____

★힌트_ 한옥문화관 전시물과 전시글을 살펴보세요!

한복촌

예를 갖춘 바른 몸가짐



값비싼 옷보다는 정숙하고 단정한 차림새

선비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의관을 갖추어 입었으며 값비싼 옷보다는 정숙하고 단정한 차림새를 중시했습니다.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기 위한 수단이자 선비의 삶과 생각, 미의식이 담긴 문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 _____

이것은 옷과 모자를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비는 얼굴 모양과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공부하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늘 의관을 가지런하게 정돈하였습니다.
이는 바른 옷차림새를 통해 바른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주 도령의 장원급제 이야기 중 이곳은 어디일까요?

→ 산신령이 오만방자한 영주 도령의 행실을 보고 영주 도령의 품에 있던 임금님에게 받은 교지를 이곳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소 _____



→ 산신령이 영주 도령을 어디론가 데려가 함장하고 기도하는 영주 도령의 어머니와 스님을 보여준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부 _____

★힌트_ 한복문화관의 전시글과 오토마타를 살펴보세요!

우리 옷의 아름다움

우리 옷 한복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선과 면 장식, 순수한 무채색의 조화는 금속과 절제를 중시하는 선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유교적 도덕성이기도 합니다.

선비 옷의 소품/장신구 이름을 알아봐요!



• 부채



• 귀주머니



• 태사혜



• 상투관



• 정자관

★힌트_ 한복문화관 전시물을 살펴보세요!



조화와 균형, 식치

식치(食治)는 음식과 약은 동일하다는 의식동원 사상에 따른 조선시대 건강관리법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음식은 다양한 맛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평소에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몸을 다스리고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석간 경험방』에서 죽과 밥을 이용한 식치 처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식생활과 식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치는 건강한 음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예방의학입니다.

☞ 일상의 건강식, 절제된 선비밥상

나만의 선비밥상을 만들어요!

소반모니터에서 선택한 요리 중 한가지 '요리의 재료 또는 만드는 법'을 적어보세요!

▶ 요리 이름 :

▶ 재료 또는 만드는 법 :

★힌트_ 한식문화관에서 체험 할 수 있어요!

☞ 밥상문화 알아보기

★힌트_ 한식문화관 소반모니터 또는 전시글을 살펴보세요!

● 혼자 먹도록 차린 음식상

이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정립된 문화로 한 상에 밥과 국, 찬의 조화로운 맛을 극대화하고 나만을 위한 상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차림입니다.



● 음식을 알맞게 먹어 병을 치료하는 일

각 음식물의 맛과 작용에 따라 알맞게 섭취하여 몸과 장기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나라 식사문화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씁니다. 이 문화가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국물 음식과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 날을 빛내는 전통 밥상

★힌트_ 한식문화관 전시물을 살펴보세요!

어느 때에 차린 상차림인지 알아보아요!



손 _____



축 _____



상 _____



삼 _____



선비의 생각이나 마음을 담는 한지

평생 배움을 위해 끊임없이 독서하고 사색하는 선비들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그림이나 글쓰기로 표현하였습니다. 표현 하나에도 절제하는 사회였으나 선비의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굳은 신념, 우정과 애정, 그리움과 연민 등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를 보관하는 전통가구 '고비'



선비들은 문방사우를 늘 곁에두고 얻은 깨달음과 가족, 지인을 향한 마음을 한지에 담았습니다. 한지는 천년의 세월을 견디기에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선비들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선비가 사랑한 종이, 한지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1 닥나무 채취



2 닥나무 껍질 벗기기



3 닥나무 삶기



4 닥나무 껍질 씻기



5 티고르기



6 닥나무 껍질 두드리기



7 닥나무 껍질에 닥풀 뿌리 진액 혼합



8 한지 뜨기



9 한지 말린 후 두드리기

선비세상에서는 8번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직접 만든 한지 꾸미기

한지문화관에서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한지를 붙여 꾸며보세요.

또는 인터랙티브 아트월에 직접 꾸민 연을 띄워 보고 꾸민 연을 붙여 간직해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글은 발음기관과 하늘, 사람, 땅(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든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예요. 또한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여서 기본글자만 익히면 그것을 조합하여 수없이 많은 낱말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금닛 소리(아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혓소리(설음)
혀끝이 앞잇몸에 닿는 모양

입술소리(순음)
입의 모양

잇소리(치음)
이의 모양

목소리(후음)
목구멍의 모양

자음 14 |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ㅇ'의 다섯 자를 기본으로 하고, 획을 더해 총 14자의 자음을 만들 수 있어요.

모음 10 |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의 세자를 기본으로 하고, 획을 더해 총 10자의 모음을 만들 수 있어요.

훈민정음 한글 해설서가 영주에도 있어요!



훈민정음은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 자음과 모음 글자 내용, 해설을 묶어 만든 책이에요.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책이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언해본 중 하나가 영주에 있는 절 '희방사'와 인연이 깊어요. 희방사에서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1권 앞부분에 언해본을 함께 실었어요. 이후 계속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목판에 새겨 보관해 왔는데, 1950년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어요. 이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8년 언해본 목판 복원에 성공했고, 기증을 통해 영주 희방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선비세상에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은 '영인본'이에요!

잘못된 우리말 고치기

잠궂다 →

어짜피 →

몇 일 →

제작년 →

★힌트. 한글문화관에서 한글 꽃밭 가꾸기 게임을 해야해요! 빠르게 지나가니 잘 기억해주세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팝업창 →

기스 →

컨닝 →

이모티콘 →

★힌트. 한글문화관에서 한글 꽃밭 가꾸기 게임을 해야해요! 빠르게 지나가니 잘 기억해주세요!

한음악촌 선물이 흐르다



음악이 머무는 순간

음악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소리에 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취향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음악은 몇백 년 전 선비의 곁에도 있었습니다. 선비들도 음악으로 마음을 달랠고, 기쁨을 나누며,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음악은 선비들이 지나쳤던 길목에도, 삶의 터전에도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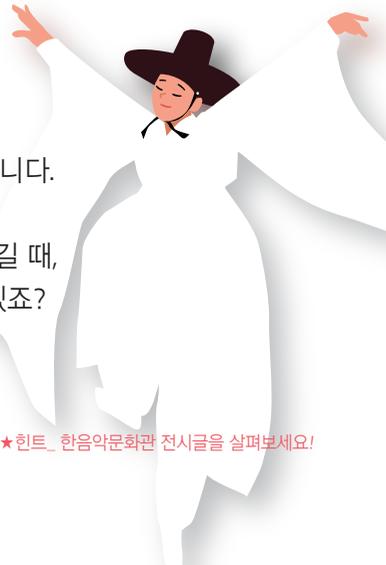
음악에는 마음이 투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비들은 마음을 다스려 온화하고 맑은 소리, 바른 음악으로 수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악기는 욕심을 금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악기라 하여 선비의 악기로 불렸습니다.



나의 음악을 함께 즐기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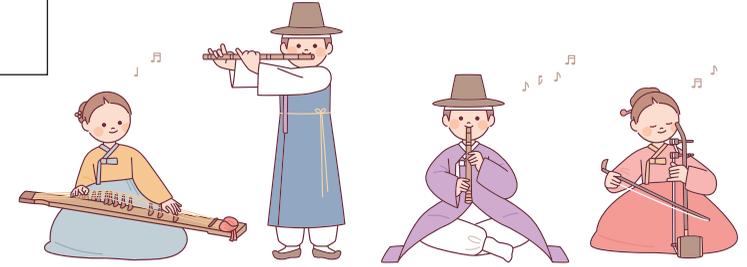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면 즐겁듯이 선비들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고 듣기를 즐겼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음악의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OO'이라고 불렀는데요. OO를 만나 함께 연주하고 즐길 때,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을 잊을 수 있었겠죠?

★힌트_ 한음악문화관 전시글을 살펴보세요!



경사스러운 날 받는 선물

기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이를 기념하고 널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축하받는 주인공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잠시나마 즐거움이 됩니다. 선비의 생애에도 축하할 때 자주 울려 퍼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비세상 체험학습을 마치며 느낀점을 적어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을 검색해주세요



선비세상 홈페이지